

# 차대통령-최순실, 차명폰 통화 매일 3회꼴

### 지나해 4월18일~10월26일까지 570여 회... 최씨 독일 도피 기간 127차례 평균 2회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차명폰'으로 매일 3회 가량 전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지난해 9월3일부터 10월26일 사이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때에도 하루 평균 2회꼴인 총 127회나 통화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긴밀

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며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두 개의 핸드폰은 모두 운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것"이라면서 "녹취나 실물 휴대 전화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회의 통

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을 최소 192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2.97회에 달하는 통화를 주고 받은 셈이다.

특히 두 사람은 최씨의 독일 도피 기간에도 하루 평균 2.19차례나 통화를 했다. 최씨는 9월3일 독일로 출국해 10월30일 오전 7시30분에 귀국했는데, 이 기간에만 박 대통령과 127회나 통화했다.

이 기간은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갖추던 시기였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26일로 파악됐다. 최씨가 독일에서 입국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특검보는 "관계자 진술 등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이 휴대전화로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도의회, '새만금 MOU 조사특위' 구성·본격 가동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용모 의원 등 9명을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 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조사특위 위원들은 15일 '새만금 MOU 조사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양용모 의원, 부위원장에 박재만·최인정 의원을 선출하고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MOU)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 출석 및 청문 등을 통해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새만금 투자무산 논란의 원인과 배경을 조사해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상황으로 MOU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특위에서는 도와 협력해 MOU 관련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도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용모 특위원장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됨으로써 도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상황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MOU)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해 도민에게 명백히 밝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오는 23일에 있을 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계획인 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의회 환복위

####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5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최근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회사 전주시 등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와는 반대로 청소원, 경비원들을 외주용역하는 의도가 무엇이나고 따져 묻고 외주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제출받은 자료에는 청소원, 경비원, 회계보조가 1년 단위 기간제(정년보장)로 규정돼 있는데 올 1월부터 3월까지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문하고 외주용역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며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할 일은 아니라고 질타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미션과 전략 목표와 과제에서 핵심이 성평등인데 성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체 사업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션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무소속인 박성일 원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 “정권교체·지역발전에 도움주고 싶다”

### 박성일 원주군수·이항로 진안군수 민주당 입당

무소속인 박성일 원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고 지역발전에 도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안호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주·진안 발전을 이뤄 내겠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현안 사업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두 분의 입당을 전북도당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전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당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특정 정당 분들을 빼내오기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민주당 입당으로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늘었으며 국민의당 1명, 무소속은 3명 등이다. /인재용 기자

### 박주현 의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정부대책 촉구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일방적인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대우조선에 국책은행을 동원해 4조원 넘게 지원하고, 출자 전환 등을 합치면 7조원 가량 지원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조원 이상 흑자가 났는데도 400억원을 아끼기 위해 도크 한 개 뿐인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려 한다”며 군산조선소의 일방적 폐쇄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전북 경제의 9%,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며, “군산조선소 문제는 이윤 창출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차원의 군산조선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 위원장은 박주현 의원의 주장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유 경제부총리는 “군산조선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조배숙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가공·유통·판매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역학조사, 정밀검사 그리고 방역에 따른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공 관련 가공·유통·판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http://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